

한우

전국한우협회 제 4대,
5대 회장 이취임식
제 2, 3, 4대 남호경
회장 이임...
제5대 정호영 회장 취임



한우산업을 위해 9년간 전국한우협회장을 맡아 온 남호경 회장이 이임하고 새로 정호영 회장이 취임했다.

이날 남호경 회장은 한우산업을 위해 큰 일을 하겠다는 각오로 회장을 맡아 9년이라는 긴 시간을 회장직으로 일해왔으며 이제 정호영 회장에게 회장직을 넘겨주게 되었다고 밝혔다. 앞으로 정호영 회장이 부회장과 임직원들의 협조를 받아 한우산업을 잘 이끌어 나갈 것으로 굳게 믿는다고 밝혔다.

정호영 회장은 한우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회장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고 밝히고 초대 이규석 회장과 남호경 회장의 뜻을 존중하고 한우산업이 안정적으로 자리메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라이브뉴스 곽동신기자

이벤트

‘삼삼데이’ 이벤트
온·오프라인 성료
한돈자조금관리위,
대형 유통업체와 공동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병모)는 3월 3일(삼삼데이, 삼겹살데이)를 맞아 11번가, 현대백화점 등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와 공동 이벤트를 진행했다. 또 한돈닷컴과 한돈블로그 등을 통해 고객 참여 이벤트를 진행했다. 오픈마켓 11번가(www.11st.co.kr)에서는 삼삼데이를 맞아 ‘한돈’으로 구성된 ‘삼겹살 DAY’ 기획전을 실시해 인삼삼겹살, 벌침맛은삼겹살, 지리산 흑돼지 등 11가지 보양 삼겹살을 평소 가격보다 최대 64% 할인된 가격에 팔아 인기를 모았다. 또 다양한 부위의 돼지고기를 맛볼 수 있도록 목심, 안심, 갈비, 후지 등도 최대 64% 저렴하게 판매했다. 또한 한돈 고구마 삼겹살(400g)을 63% 할인된 가격인 3300원에 한정 판매 이벤트를 진행했다.

현대백화점 전 지점에서는 3월 1일부터 3월 4일까지 삼겹살을 1700원~1800원대 판매하며 행사 기간 동안 매일 한돈 구매고객 대상 선착순 100명

에게 한돈 책자를 증정했다. 특히 3월 3일 당일에는 한돈 전 부위를 20%~25% 할인된 가격에 판매했다.

농협 안심 축산물 판매장 전 지점에서 이벤트도 진행했다. 3일 당일에는 삼겹살 30% 할인 판매, 구매고객 한돈 책자 선착순 증정 등을 실시했다. 한돈닷컴(www.handon.com)은 한돈닷컴 홈페이지에 우리돼지 한돈이 수입산보다 좋은 이유를 댓글로 작성한 네티즌을 추첨해 4만원 상당의 저지방 한돈세트를 증정했다.

이밖에도 한돈자조금 블로그(http://blog.naver.com/han_don) 1주년 기념으로 3월 1일부터 한달간 ‘기념 이벤트’를 진행했다. 한돈 블로그 1주년 축하 메시지 댓글을 달고, 한돈 블로그에서 가장 좋았던 글을 추천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5만원 상당 한돈세트와 영화예매권 등을 증정했다.

축산경제신문 한정희기자



토종닭 자율도태 운동 ‘결실’

토종닭업계가 수급안정을 위해 추진한 토종닭종계 자율도태 운동이 결실을 맺고 있다.

특히 십시일반으로 감축한 종계로 인해 올 한해 실용계 생산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토종닭 농가들은 연간 1천400억원의 소득이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토종닭협회(회장 김연수)에 따르면 토종닭 종계 자율도태 이후 토종닭 산지시세가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생산비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종닭협회는 토종닭 생산량 증가와 함께 경기위축에 따른 소비감소로 토종닭 소비가 감소하자 자율적 수급조절을 실시했다.

토종닭협회가 추진한 종계 도태 캠페인은 2만수 이상 농가의 경우 사육수수의 30%, 2만수 이하는 20%, 1만수 이하는 10%를 도태시켜 모두 10만수 가량의 종계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3월 중순 현재 목표량을 거의 달성한 상태로 감축 전 47만9천수에 달하던 토종닭 종계수수가 35만9천수 수준으로 줄었다.

이처럼 토종닭 종계가 줄어들에 따라 올 한해 생산될 수 있는 토종닭 실용계가 당초 7천만수를 상회하던 것이 5천300만수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토종닭협회는 토종닭 산지가격도 감축 이전에는 생산비 5천800원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연평균 4천500원대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자율도태가 마무리됨에 따라 생산비보다 다소 높은 6천700원대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

했다.

이를 연간 소득으로 환산할 경우 당초에는 수당 1천300원의 적자가 예상됐지만 감축 이후에는 926원의 소득이 발생해 결국 토종닭 업계 전체적으로는 951억원의 적자가 없어지고 반대로 500여억원의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모두 1천400억원의 이득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토종닭협회의 설명이다.

축산신문 이희영기자

낙농

이승호 낙농자조금관리 위원장 재선임 단독 입후보 무투표 당선



낙농자조금관리위원장 선거에 이승호 관리위원장 <사진>이 단독 출마함에 따라 무투표 당선됐다. 낙농자조금대의원회 의장 후보에는 2명이 출사표를 던져 대의원회에서 경선을 통해 선출하게 됐다. 낙농자조금관리위원회는 대

의원회 의장 및 관리위원장의 임기가 지난 2월 23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낙농자조금 관리위원장 및 대의원회 의장 후보 등

록을 받은 결과, 관리위원장에는 이승호 위원장만 입후보 했으며 대의원회 의장에는 구창호 의장(경남 밀양, 벨엘목장)과 이경훈씨(충남 보령, 즐거운목장) 등 2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양봉

벌침액, 양봉농가 새 소득원 관심 유럽 이어 미국수출 결정

우리나라 벌침액(정제봉독)이 유럽에서 화장품 원료로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미국 수출도 결정되는 등 양봉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국내에서 생산한 벌침액을 지난해 8월부터 올 3월까지 영국에 화장품 원료로 1kg(4억원어치)을 수출했다고 밝혔다. 영국에서 판매하는 한국산 벌침액을 사용한 화장품에는 '정제봉독(PURIFIED BEE VENOM)'이란 표시가 붙어 있다.

또 3월 초 미국 애너하임에서 열린 화장품·식품 관련 행사인 '천연물엑스포'에서 한국 정제봉독이 소개돼 큰 호응을 얻으면서 미국 수출도 성사됐다.

별침액은 우리나라에서 연간 약 4kg 생산되며 멜리틴·포스포리파제·아파민 등의 성분이 들어 있는 천연항생물질로 가축용 항생제와 화장품 등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한상미 농진청 잠사양봉소재과 연구사는 “한국 벌침액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은 우리 봉독 채집과 정제기술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농진청은 봉독 채집장치(2005년), 정제기술(2007년) 그리고 봉독을 이용한 봉독 화장품(2010년)을 개발해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양봉농가·영농조합·산업체 등에 기술을 이전한 바 있다.

농민신문 박상규 기자



다. 협회를 운영하는데 있어 2년의 임기는 짧은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강준수 회장은 “타 생산자 단체의 경우도 일반적으로 3년을 임기로 하고 있다. 실제 2년의 임기로는 장기적 안목을 갖고 협회를 운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 이어 열리 이사회에서는 현재 공식으로 있는 4명의 임원에 대해 부회장 2명에는 구권희, 오재덕씨, 이사 2명에는 최원규, 이근우씨가 추천됐다.

한편, 협회의 강준수 회장이 3월2일 부로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양록협회는 현 정유환 부회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축산신문 이동일기자

양록

양록협회장 임기, 3년으로 연장
양록협 정총서 개정안 통과

양록협회장의 임기가 3년으로 늘어난다.
(사)한국양록협회(회장 강준수)는 지난 3월 16일 대전 유성 레전드 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날 총회에서는 현 2년인 회장 및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변경기로 하는 정관개정안을 통과시켰

